

# 나빠진 '성장의 질' ... 내년 더 '암울'

### 4분기 연속 '0%대 성장' 부동산 과열·재정에 기대

### 전문가들 "4분기 이후 소비 절벽·수출급감 등 우려"

한국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0%대 성장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수출의 회복세를 기반으로 0%대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 연 3% 성장도 너끈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0%대 성장은 양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고약하다. 내수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건설 투자 및 정부 재정 등에 기대 면이 도드라진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올 4분기는 그런대로 넘겨 당초의 목표인 연 2.7% 성장을 이룬다 해도 소비절벽과 수출부진,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등 내외의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어 내년 성장률 목표치 2.8%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일단 한은은 올해 전망치인 2.7%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이 -0.14~0.23%만 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0.24% 이상이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2.8% 달성도 가능해진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대략 추산했을 때 4분기가 전분기 대비 0.0% 이상만 되면 올해 2.7%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산술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내년의 경우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춘 2.8%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정부의 추경 등 재정 정책과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건설투자 증가에 의존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통화매니저로 스마트하게 고객관리하세요 KT는 유선전화 대표 부가서비스 '통화매니저'의 앱 버전 무료화와 함께 기존 서비스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통화매니저'는 스마트폰 앱(Android/iOS 모두 지원)과 PC를 통해 유선전화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 경기를 제약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으로 민간 소비쪽에서 '소비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파업 후유증과 엔진결함 사태로, 휴대전화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임노중 유화증권 투자분석팀장은 "올 4분기 역성장만 않는다면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을 뜯어보면 민간소비, 수출, 설비투자 등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과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등 건설 투자 증가로 지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분기로 가면 정부 지출 효과가 약해지고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성장률 절벽이 올 수도 있다"며 "결국 수출 회복이 관건인데, 갤럭시노트 7 단종 영향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여건도 좋지 않아 앞으로의 성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현대선물주식회사 연구원 역시 "4분기 역성장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내년까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질지 미지수고 가계부

채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조정 압력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4분기 이후 갤럭시노트7, 현대차 파업 사태 영향이 가세할 수 있어 올해 전망치 달성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2.8%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은 "한은의 전망치 자체가 교역여건 등 대외적 모멘텀이 되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저물기흐름도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수요가 강하게 되살아날 요인도 찾기 힘들어 내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들도 이미 올해와 내년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이 2.6%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6%로 예상하고 있고, LG경제연구원도 이들 보다 더 낮은 2.5%로 보고 있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더 암울한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두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경기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간소비는 올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낮은 1.4%를 기록할 것"이

라며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기존의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및 브렉시트(유럽의 EU탈퇴)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소비를 제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 카카오톡 국내 점유율 95%

카카오톡 국내 점유율이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메신저임을 입증했다.

25일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발표한 이달 기준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2억3388명의 모바일 메신저 이용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 9개 주요 모바일 메신저의 총 사용시간 중 카카오톡의 사용시간은 95%를 차지했다. 라인 2%, 페이스북 메신저, 위챗(중국명 웨이신), 텔레그램은 각각 1%였다.

스카이프, 네이트온, 왓츠앱, 바이버의 점유율은 다 합쳐도 1%가 안됐다. 왓츠앱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메신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했다.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는 3061만명이었으며 페이스북 메신저 445만명, 라인 224만명, 위챗 72만명, 텔레그램 60만명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평균 1.7개의 메신저를 설치하고 있었고, 하루에 실제 사용하는 메신저는 1.2개였다. /뉴시스

## 실질 국내총소득, 2분기째 감소

### 3분기, 전분기 대비 0.3% 줄어... 국제유가 상승 영향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GDI)이 올 3분기에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보다 0.7% 늘었다.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자동차 파업 등 불발 약재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치다. 건설투자와 정부의 재정이 성장률을 떠받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질GDI는 전분기 대비 0.3% 줄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2분기는 5년3개월 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바 있다.

실질GDI는 환율 등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GDP를 더해 산출한다. GDI가 감소하면 교역조건이 악화했다는 의미로, GDI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교역조건에 민감한 한국 같은 나라의 실질구매력을 잘 보여준다.

실질GDI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한 국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지표다.

사과 1개의 가격이 100원이고 100개를 생산한 경우 GDP는 1만원이다. 10

년 뒤 사과 가격이 1000원으로 올랐고 여전히 100개를 생산한다면 GDP가 10만원으로 증가하지만 생산량은 100개로 동일하다.

이처럼 물가의 변동 때문에 GDP규모가 늘어나는 착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기준시점의 고정된 가격에 생산량을 곱해서 실질GDP를 집계한다.

하지만 실질GDI는 외국과의 교역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해 구매력을 따지는 지표가 실질GDI다.

한국경제의 생산능력이 1000달러일 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라면 원유 100배럴을 살 수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10배럴만 구매 가능하다. 수입물가가 상승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임노중 유화증권 투자분석팀장은 "GDI의 감소는 소득이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질GDI가 줄어든 주요한 원인으로 국제유가가 꼽힌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실질무역손실 규모도 커진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실질GD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최근 상승세"라며 "무역손익 자체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 "최대주주 변경 잦은 회사, 투자 피해야"

### 금감원, 임직원 횡령·배임, 사모 자금조달 비중 큰 회사도 조심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1%)이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2년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가운데 25곳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된 사례가 있다.

회사가 운영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자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회사도 일단 피하는 것이 권고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